



▲ 사진 왼쪽부터 양돈협회 정광진 주임, 금보육종 이해철 이사, 장성훈 대표, 김현백 HACCP 부팀장, 양돈협회 김재경 주임, 오유환 대리

HACCP을 통한 친환경 사양과 PRRS 청정화로 양돈미래 열어가는 **금/보/육/종**

글 · 사진 - 오유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제조, 가공 등 모든 단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 위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축산물HACCP기준원으로부터 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 (주)금보육종(대표 장성훈) 원주 GP. 지난해 양돈협회에서 실시한 HACCP 교육을 통해 농림부 HACCP 인증 농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농장주와 임직원 모두가 HACCP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는 한편, 국내 소모성 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PRRS 청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표로 우수한 위생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청정 강원도의 양돈전문기업 금보육종을 찾아보았다.

양돈종합전문회사, (주)금보육종

(주)금보육종(대표 장성훈)은 지난 97년에 금보농장으로 시작, 99년 금보영농조합법인으로 종돈업을 시작했다. 2000년 영서 AI센터를 설립하고 계열사업부를 개설한 뒤 01년 위생방역실 개설, 04년 농업회사법인 (주)금보육종으로 태어났다. 지난 2005년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뒤 지난해 강원 GGP를 준공, PRRS 청정 핵돈군을 조성하고 농림부 HACCP 인증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양돈전문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보육종은 현재 경영지원부, 육종사업부, 종돈사업부, 계열사업부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육종사업부는 강원 GGP(모돈 300두), 원주 GP(모돈 1,000두), 상주 GP(모돈 650두)를 담당하고 있으며, 계열사업부는 브랜드 지원 사업, 농장관리, 출하관리를 담당하며, 종돈사업부는 종돈의 공급, 인공수정과 고객지원을 담당하는 등 유기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 2,500두의 돼지를 출하하고 있으며, 종돈사업으로 매월 850두, AI 유전자사업으로 매월 6,000복 내외의 정액을 판매하고 있다.

강원 GGP농장 준공...PRRS 청정화 실현

최근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양돈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청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양돈협회에서도 올해 주요 사업계획의 하나로 돼지열병 청정화와 PRRS 안정화 대책을 주요 핵심 사업으로 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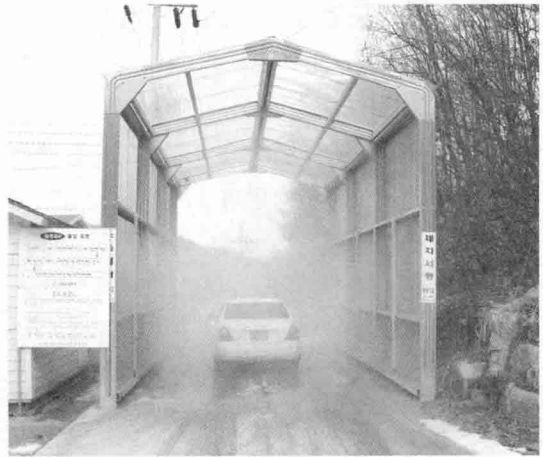
▲ (주)금보육종 장성훈 대표는 "PRRS 청정화와 농장 HACCP 도입을 통해 국내 양돈산업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주)금보육종은 이와 같은 생각에 동참하여 지난 6월 강원 GGP농장 신설을 계기로 PRRS 청정 핵돈군 조성을 통한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며, PRRS 청정화의 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총 30억여원이 투입된 금보육종 강원GGP 농장은 모두 4천3백50평에 달하는 부지위에 교배사와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및 훈련사 각 1동과 검정사 5동으로 구성, 모돈 3백두가 일관 사육되고 있다. 특히 강원 GGP농장은 신축과 함께 전돈군을 세계적인 육종회사인 캐나다의 세계적 육종회사 제네수스와 미국의 왈도사로부터 GGP 종돈 전량을 도입해, PRRS 음성농장 실현했다.

전돈군, 강건성 등 유전력 국내 적합도 선발

PRRS 음성농장을 실현하는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다.



▲ 외부 방문자는 방명록을 작성한 후 농장 관리구역으로 진입전 소독통로를 통과해야만 농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농장 진입전 반드시 샤워장을 경유해야 현장 사무실에 진입할 수 있다. 샤워전에 개인 소지품은 자외선 소독하며, 외부인과 직원용을 구분하여 샤워를 실시한다. 출입구 소독 역시 2중으로 하고 있다.

장성훈 대표는 이 과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지금까지 인정받아왔던 우수한 금보육종의 특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가에 대한 의구심이었다고 말한다. PRRS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순종돈군 재편성은 기존의 널리 인정받고 있었던 금보육종의 사업적 성과를 포기해야 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주)금보육종 후보모돈은 각종 돼지품평회에서도 그 품질과 우수성을 인정받았기에 더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순종돈 도입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금보육종은 캐나다의 세계적인 육종회사인 제네수스사와 우수유전자 공유 및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금보육종과 유사한 형질의 우수한 유전자 확보했다. 이번에 도입된 순종돈들은 강건성은 물론 일반적인 외국산 종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등지방 두께가 두꺼운 유전능력을 확보, 금보육종이 추구해온 기존의 종돈개량 방향과 일치하는 종돈을 찾음으로써 그 시너지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보육종 강원 GGP농장에는 지난해 6월 첫 입

식이 이뤄져 올해 5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종돈이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돈군 유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을 자랑하는 강원 GGP

이렇게 조성된 강원 GGP는 PRRS 청정돈군 유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청정돈군의 조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청정돈군의 유지인 만큼 철저한 차단방역을 유지하는 한편, 위생도 향상을 위한 그룹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해 매달 PRRS 점검을 실시하며, 샘플 검사를 실시한 뒤 의심되는 돼지가 발견되면 전 돈군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철저한 출입절차에 따라 외부인은 최소 24시간 계류후 지정된 장소에서 자외선 소독과 샤워 후 모든 옷을 갈아입고 출입이 가능하다. 도축장 출입자는 72시간, 외부농장 출입자는 48시간 이상 계류해야 농장진입이 가능하다. 이것은 농장출입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장성훈 대표마저도 GGP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계류절차를 철저하



▲ 금보육종은 최근 축산물HACCP기준원으로부터 HACCP 농장으로 지정받아 우수한 위생방역 시스템을 갖춘 청정 강원도의 종돈장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계기를 마련했다.

게 지킨다.

금보육종내의 각 강원 GGP, 원주 GP, 영서 AI 센터 등 각 농장은 전용차량을 통한 위생적인 운송을 실시하고 있다. 사료, 자재 등 역시 전용차량으로 모두 농장과 분리된 별도의 진입로를 통해 반입되며, 농장에 출입하는 직원들은 월 2회 격주 월요일에만 출입이 허용된다.

외부 식자재의 반입도 엄격해 자체식당에서 요리를 전담하며, 돈육의 경우 삶은 고기만 먹을 정도이다. 특히 설 명절이 있는 2월을 자체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금보육종 원주GP HACCP 인증 획득...
생산성, 팀워크 동반 상승**

이와 함께 지난 7월 강원 GGP 농장 준공에 이

어 원주 GP농장도 새롭게 단장했다.

금보육종 원주 GP농장은 모든 7백50두 규모의 기존 GGP 농장을 활용, 시설 증·개축 공사에 돌입해 모든 1,000두 규모 농장으로 확대하여 우수한 능력의 깨끗한 후보돈 공급이 가능하며, F1모돈 생산능력이 월 5백두에 달한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양환경 관리를 위하여 신축된 원주 GP에는 최첨단 독일식 자동액상급이라인을 설치하였고, 보온등 자동콘트롤, 온/습도 자동 측정기, 신개념의 분뇨처리 방식인 플러싱을 접목하여 21세기 최신키의 돈사를 구축했다. 또한 최근 축산물HACCP기준원으로부터 HACCP 농장으로 지정받아 우수한 위생방역 시스템을 갖춘 청정 강원도의 종돈장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계기를 마련했다.

장성훈 사장은 "HACCP 시스템은 후보돈까지 HACCP 체계하에서 생산된 후보돈 공급이 전제



▲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양환경 관리를 위하여 신축된 원주 GP에는 최첨단 독일식 자동액상급이라인을 설치했다.



▲ 강원 GGP농장은 신축과 함께 전문군을 세계적인 육종회사인 캐나다의 세계적 육종회사 제네수스와 미국의 알도사로부터 GGP 종돈 전량을 도입해, PRRS음성농장 실현했다.



▲ 금보육종 김현백 대리는 HACCP을 진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농장의 생산성도 개선되는 효과와 함께 농장 직원들간의 팀워크와 결속력이 더욱 좋아졌다고 밝혔다.

가 돼야 한다”며 “이번 농림부 HACC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고품질의 종돈생산은 물론 비육돈농장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보육종 김현백 대리(HACCP 부팀장)는 “HACCP을 진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농장의 생산성도 개선되는 효과와 함께 농장 직원들간의 팀워크와 결속력이 더욱 좋아졌다”며 HACCP의 장점을 밝히기도 했다. 금보육종은 앞으로 자체 비육돈농장까지 HACCP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먼저 찾는 브랜드 생산할 것

장성훈 사장을 비롯한 금보육종 관계자들은 “생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PRRS인 만큼 양돈 선진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정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방법을 모색했다면서, “PRRS 청정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조성 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 PRRS 음성돈군 도입을 통한 청정화를 실천하고 HACCP 도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 농장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 양돈산업의 미래를 여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앞으로 금보육종은 PRRS 청정 핵돈 GGP 운영을 통해 GGP와 GP 분리 전문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육종을 통한 강건성 위주의 한국형 종돈 모계라인을 구축하고 부계는 육량과 하이마블링 육질의 분리육종으로 개발하여 시장기능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보육종의 GGP, GP 농장을 통한 우수 유전자 개발과 보급과 브랜드참여 농장을 통한 고품질 브랜드 돈육의 생산과 판매로 청정 강원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돈**